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Toward their
School-Aged Grandchildren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 Famili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 미 숙
한국고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 병 은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강 란 혜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Lee, Mi-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Cho, Byung Eun

Dep'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ang, Ran Hy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toward their grandchildren in the elementary school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 families. The subjects were 274 grandparent-grandchild pairs.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both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Mi-Sook Lee,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kkok-dong, Wonmi-gu, Puchon City, K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306 Fax: 82-2-2164-4111 E-Mail: misooklee@catholic.ac.kr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were collected in 2001.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actor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level of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is moderate in general. However, the grandmothers in working mother families perform surrogate mother roles more strongly than the grandmothers in nonworking mother families. 2) While contact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child is associated with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in working mother families, the grandmother's age and the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 and mother are related to the level of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in nonworking mother families. In conclusion,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in working mother families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in the supporting system than in nonworking mother families.

주제어(Key Words): 조모의 역할수행(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취업모가족(working mother families), 비취업모가족(nonworking mother families), 학동기 손자녀(school-aged grandchildren)

I. 서론

현대사회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OECD, 2001),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2.1세, 여자는 79.5세로서 남녀 모두 20년 전보다는 약 10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따라서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조부모 기간은 과거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김태현, 1999: 172; 장인협·최성재, 1987: 227; Jerome, 1993: 236; Roberto, 1990: 100; Schwartz & Scott, 1997: 388; Szinovacz, 1998).

과거 한국사회의 경우 농경사회의 직계가족 제도에서 조부모는 주로 손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 사회화과정에 참여하고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감과 훈육, 보호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었으며 가정살림으로 바쁜 모친의 역할을 대신하여 손자녀의 생활과 놀이를 주관하고 무릎학교 원장으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김태현, 1999: 172-173; 유안진, 1980: 93-101).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핵가족화는 세대관계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조부모세대를 고립·소외시킴으로써 조부모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장인협·최성재, 1987: 30).

미국사회의 경우에는 특히 핵가족의 자율성과 사생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다 강조하므로 조부모 역할에 대해 행동적 기대는 거의 없다(Jerome, 1993: 236). Adams (1986: 162)는 많은 아동양육 잡지 내지 전문가들이 아동발달의 권위자인 조모를 대신하고 있으며, 부모는 조부모세대의 축적되고 변함 없는 충고를 구하는 대신 당대에 유행하는 육아지침 충고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부모 역할에 대해 관심이 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점 많은 조부모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의 부모세대가 사망, 이혼, 실직, 빈곤, 질병, 알콜/약물중독, 투옥, 자녀학대와 유기 등으로 인해 그들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Burnette, 1999; Fuller-Thomson et al., 1997; Pruchno, 1999; Schwartz & Scott, 1997: 390). Roberto(1990)도 가족위기 상황 중 특히 이혼가족일 때 손자녀에 대한 조모역할이 증가했다고 하였는데,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조부모역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roll(198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부모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자녀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제방의 구멍을 메워 가족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가족 지킴이(family watchdog)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

의 경우, 특히 이들 취업모 가족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일부 조모는 단순육아에서 더 나아가 손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 장차 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참여가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30만 명 중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8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방과후 빈집에 들어오는 이른바 '열쇠아동'이 30%나 되고 있다²⁾. 학동기 아동은 영유아보다 성장했지만 아직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연령이 아니며 여전히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있으므로(이육, 1995), 보육시설 내지 방과후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취업모가족의 학동기 아동에 대해 가족의 지원체제로서 조부모의 역할수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중·노년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주로 노후를 위한 사회정책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 가족관계 측면에서 조부모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외의 조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는 조모역할이 조모·손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조모의 역할수행은 조모에 대한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대간 유대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동인, 1991), 일본 후생성의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대리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부갈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³⁾. 미국사회의 경우 일부 정신치료학자들이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 가족의 정서적, 도구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조모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Fischer, 1983), 조부모의 역할수행은 조부모 자신과 손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rubaker, 1985: 77-78, Schwartz & Scott, 1997: 389). 즉,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을 통해 조부모의 인생만족도(Robertson, 1977; Thomas, 1986; Roberto, 1990: 104), 자아존중감과 즐거움(Barranti, 1985; Thorson, 2000: 84)이 증진되었으며,

손자녀에게는 세대의 연속성을 인식시키고(Barrow, 1986: 116-117; Jerome, 1993: 237), 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Adams, 1986: 302)고 하였다. 또한 손자녀를 많이 돌볼수록 조부모의 사회적 정체감은 지지되었으며, 손자녀는 가족의 역사와 가족 관습의 의미를 배우는 이점이 있다(Brubaker, 1985; Kivnick, 1982)고 하였다. 또한 조부모 역할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기(박화윤·이영숙, 1999; 최기영, 1991; 한경희, 1988) 또는 청년기 손자녀(박경관, 1994; 서동인, 1996; 이경숙·박경관, 2000)를 대상으로 하였고, 학동기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서동인(1989; 1991), 장희경·조병은(1995)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이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취업모가족일 때 조부모역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어떠한지는 구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모가족의 경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수행이 해당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체제로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조부모 역할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취업모 가족을 중심으로 비취업모 가족과 비교하여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 역할수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부모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은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수행은 조부모 자신의 노년기 삶의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핵가족화하고 있는 현대가족의 세대간 유대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의 역할수행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취업모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로서의 조부모 역할수행을 규명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을 중심으로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어떠한지 비교해보

1) 동아일보 2001년 5월 21일자, 2002년 1월 3일자, 1월 22일자
 2) 동아일보 2001년 12월 20일자
 3) 동아일보 1996년 11월 29일자

고 배경 변수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모 가족의 학동기 자녀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노년기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 내지 역할상실로 인해 소외된 노년기 삶(장인협·최성재, 1987: 25-30)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핵가족시대의 세대관계 단절을 극복하여 가족유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부모 중에서 우선 조모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조부모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고, 대개의 여성들에게 조모역할은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역할로 기대되어 왔기 때문이다(Barrow, 1986: 116-117). 많은 연구들이 조모에게 초점을 둔 이유는 조부보다는 조모가 손자녀를 더 많이 돌봐주고 대리부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며(Fuller-Thomson et al, 1997; Thomas, 1986),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어서 손자녀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는다(서동인, 1991; Szinovacz, 1998)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 배경 변수와 조모 역할수행의 관계는 각각 어떠하며, 조모 역할수행에 대해 배경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II. 관련연구 고찰

1. 조부모의 역할수행

서구사회의 경우 조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거의 없고 모호하므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Brubaker, 1985: 73; Troll,

1983). 즉, 손자녀와 친근한 관계를 발달시키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부모가 손자녀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Neugarten과 Weinstein(1964)은 70쌍의 중류층 조부모를 각각 면접한 결과, 조부모의 역할수행 내용을 형식적 유형, 재미추구형, 원거리 유형, 대리부모 유형, 가족지혜의 저장고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조부와 달리 조모는 자녀세대인 취업모의 요청에 의해 손자녀를 볼보는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는 단일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조부모의 역할수행 내용은 5개 유형 중 한 개 유형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에 중복하여 속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oberto, 1990: 101).

Robertson(1977)은 125명의 조모를 면접한 결과 대부분은 손자녀를 돌보거나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등 조모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이러한 역할수행 내용을 세분하여 보면, 역할에 대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규범적이며 사회적 차원, 그리고 역할에 대해 개인적 요구를 반영한 개인적 차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합형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제일 높는데, 손자녀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수행해주며 손자녀와 즐겁게 지내는 유형이다. 상징형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낮은 편인데, 손자녀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수행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반면, 개인형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높은 편인데, 손자녀와의 개인적 관계에만 관심을 두는 유형으로, 자신이 외로울 때 손자녀가 곁에 있기를 원하며, 즐거움과 혈연계승을 강조한다. 원거리형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제일 낮는데, 손자녀와 거리가 멀고 의례적, 비개별적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인생에 불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rlin과 Furstenberg(Schwartz & Scott, 1997: 389 재인용)는 조부모를 면접한 결과, 손자녀와 의례적이고 상징적 관계를 유지하는 원거리 유형, 손자녀와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동료적 유형, 그리고 손자녀를 양

육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실질적 권위를 행사하며 때로는 고압적인 기대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적극관여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Cherlin과 Furstenberg의 연구는 Neugarten과 Weinstein(1964)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역동적 속성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손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조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chwartz & Scott, 1997: 389). Roberto(1990: 111)는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므로,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과 관련지어 조부모의 역할수행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손자녀의 발달단계 및 기타 배경변수들에 따라 조부모의 역할수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가족의 경우, 학동기 손자녀(서동인, 1989)에 대한 조모 역할수행 내용은 훈계자, 대리모, 물질적 제공자, 손자녀 지지자, 가계역사와 성역할조언자, 생활간섭자 역할 등 6개 역할유형으로 나타났다. 박화윤·이영숙 연구(1999)에서는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 역할은 양육자, 교육자, 지원자의 역할 등 3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유아기 손자녀이므로 특히 조모의 양육자 역할수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모의 역할수행은 문화적 차이 이외에도 조모와 손자녀의 발달단계 내지 연령, 모의 취업여부, 그리고 여러 배경변수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변수 고찰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변수 고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수행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인종, 민족, 문화적 차이를 비롯하여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 학력, 성별, 취업, 결혼상태,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지리적 근접성, 가족유형, 경제적 여건, 손자녀의 수와 연령, 발달수준, 출생순위, 성별, 성격 차이 등이다(Robertson, 1977; Roberto, 1990: 105-111; Schwartz & Scott, 1997: 389-390; Whitbeck et al., 1993).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포함하여 인구학적 변수인 조모의 연령, 배우자유무, 건강, 생활수준, 손자녀와의 동거, 조모와 손자녀의 대면접촉빈도, 그리고 심리적 변수인 조모와 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학적 변수

먼저 모의 취업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Neugarten과 Weinstein(1964)의 연구에서 조모는 취업모 가족일 때 손자녀를 볼보는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족에서도 취업모 가족의 조모는 비취업모 가족의 조모보다 유아기 손자녀와 신체적 접촉을 더 많이 하며(한경희, 1988), 양육자 및 교육자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박화윤·이영숙, 1999). 서동인(1989)의 연구에서는 취업모 가족일 때 조모는 학동기 손자녀에 대해 특히 대리모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되는 연령시기는 그들 자녀의 결혼과 출산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조부모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적다(Schwartz & Scott, 1997: 388). Neugarten과 Weinstein(1964)의 연구에서 조부모의 연령은 조부모의 역할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세 이하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원거리 유형을 유지한 반면, 65세 이상의 조부모는 보다 형식적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bertson(1977)과 Roberto(1990: 102-110)의 연구에서 젊은 조부모는 가족 밖의 일, 친구, 지역사회 등에 많이 참여하며 손자녀와는 상징적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나이드은 조부모는 취업이나 가족 밖의 활동에 덜 참여하고 가족지향적이며 손자녀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조부모의 연령범위가 서로 다르고 그밖에 조모의 건강, 취업과 사회활동 여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모 연령에 따른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Brubaker(1985: 75-76)는 특히 75세 이상 조부모의 경우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유무는 조모의 사회심리적 적응, 행복감, 사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동인, 1991)이라는 점과 손자녀는 나이든 조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원천(Robertson, 1977)이라는 지적을 고려할 때, 배우자 유무는 조모로서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은 노년기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건강할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이 나쁘면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 가족을 소원하게 만든다. 서동인의 연구(1989, 1996)에서도 조모의 건강이 좋을 때 조모의 역할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또한 노년기의 중요한 자원이다. 생활수준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서동인, 1991), 조모의 역할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Roberto(1990)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Fischer(1983)는 저소득층일수록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까이 살면서 상호작용이 많고 조부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윤·이영숙, 1999; 서동인, 1989; 한경희, 1988).

손자녀와의 대면접촉빈도에 대해 Fischer(1983)는 조모와 손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수록 조부모는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적으므로 조부모역할을 그만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손자녀와 가까이 사는 조모는 성인 딸과 손자녀에게 조모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erto(1990: 110)는 손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대면접촉빈도가 많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봐주고, 충고해주며,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자녀세대가 이혼가족일 때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서구사회의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접촉 및 관계의 질에는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

한 요인이며(Whitbeck et al., 1993), 대리모역할을 맡은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와 근접한 거리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Fuller-Thomson et al., 1997). 즉,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조모와 손자녀간의 대면접촉빈도는 달라지며 이에 따라 조모의 역할수행 정도는 달라진다고 보겠다. 서동인(1989)과 박화윤·이영숙(1999)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조모일지라도 손자녀와 접촉정도가 많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이 많았으며, 거주지가 근접할수록 조모의 양육자 역할수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변수: 조모와 모의 관계

많은 연구들은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중간세대인 성인자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Brubaker, 1990; Roberto, 1990; Robertson, 1975, 1977; Whitbeck et al., 1993). 성인자녀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조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태도와 행동이 손자녀에게 전달됨으로써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상호작용과 유대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Robertson, 1975). 즉, 성인자녀는 손자녀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을 지각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조부모, 성인자녀, 손자녀 사이의 세대간 상호작용 내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Brubaker, 1985: 73). Neugarten과 Weinstein(1964)의 연구에서 손자녀와 원거리 유형의 관계에 있는 조모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긴장관계를 지적했다. Kivnick(1982)은 성인자녀와 조부모간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손자녀와의 접촉은 적을 것이고,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손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Whitbeck 등(1993)에서는 과거 조부모와 부모관계의 질이 현재의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세대의 중간역할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부모세대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연결하는 가족세대의 교량으로 조부모-손자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경란, 1994),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이 증가하였다(서동인, 1989, 1991). 그러나 박화운·이영숙의 연구(1999)에서는 조모와 모의 관계에 따라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이 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다는 모가 자녀의 일차적인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고 친족관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모와 손자녀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서동인, 1991, 1996)는 지적에 따라 조모와 모의 관계가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조모가 생존해있는 아동으로 제한하고, 조모관련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9개 초등학교에 총 43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대상아동을 선정할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율이 비슷하도록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였다. 아동에게는 조모관련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모용 설문지(우표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첨부함)는 아동으로 하여금 조모에게 직접 혹은 우편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모에 대해서는 아동에게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본 연구자에게 우송하도록 하였다.

2001년 2월 한달 동안 실시한 결과, 손자녀용 설문지는 407부, 조모용 설문지는 281부가 각각 회수되었는데, 부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조모와 손자녀간의 쌍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조모와 손자녀 274쌍이 되었다⁴⁾.

3. 측정도구

1)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조모의 역할수행 내용은 손자녀의 연령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동기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서동인, 1989, 1991)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제시된 역할수행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부터 '매우 그렇다(3점)'에 이르는 3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에 대해 조모의 역할수행이 많음을 뜻한다.

조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17개 문항들이 어떤 역할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 및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들이 3개 나타났는데, 3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40.8%, 8.8%, 7.1%를 각각 설명하고 있으며 총 56.7%를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요인행렬표에 나타난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에 기초하여 요인 1은 7개 문항으로, 요인 2와 요인 3은 각각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17개 문항 중 7번과 13번 문항은 요인부하값이 2개 요인 이상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는데, 문항의 내용에 기초하여 7번 문항은 요인 3으로, 13번 문항은 요인 1에 부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요인 1은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 요인 2는 "훈육자 역할", 요인 3은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로 각각 명명하였으며, 문항간 내적일치도인 크론바하 α 값은 각각 .87, .82, .71이고, 전체 17개 문항의 α 값은 .90이다.

서동인(1989)의 연구에서 나타난 6개 역할유형(훈계자, 대리모, 물질적 제공자, 손자녀지지자, 가계역사와 성역할조언자, 생활간섭자 역할)이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역할유형으로 축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모와 모의 관계

선행연구(서동인, 1989, 1991)에 기초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손자녀에게 질문하였다. 즉, '어머

4)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skipped-generation families)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 가족은 특히 조부모의 역할과중이 문제되고 있다(Bumette, 1999; Fuller-Thomson et al, 1997)는 점에서 별도의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1〉 직교회전 후의 요인행렬표

(N=274명)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산비(h ²)
1. 나는 손자녀에게 사람이 늙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81	.14	.12	.69
2. 나는 손자녀에게 사람이 죽은 후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73	.03	.20	.57
3. 나는 손자녀에게 옛날 풍습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71	.40	.16	.69
4. 나는 우리나라 역사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71	.37	.11	.65
5. 나는 손자녀에게 전례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	.65	.28	.23	.55
6. 나는 손자녀에게 부모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해준다	.61	.43	.08	.57
7. 나는 손자녀가 속상할 때 손자녀의 고민을 들어준다	.44	.40	.43	.54
8. 나는 손자녀에게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가르쳐준다	.21	.73	.07	.58
9. 나는 손자녀에게 형제와 사이 좋게 지내라고 훈계한다	.09	.71	.27	.59
10. 나는 손자녀에게 예의범절(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식사하는 예절)을 가르친다	.34	.68	.09	.58
11. 나는 손자녀에게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쳐준다	.13	.66	.41	.62
12. 나는 손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다	.29	.64	.20	.53
13. 나는 조상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46	.48	.11	.46
14. 나는 손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만들어준다	.20	.19	.77	.66
15. 나는 손자녀의 엄마대신 청소, 빨래, 집안 일을 도와준다	.10	.18	.68	.50
16. 나는 손자녀에게 용돈, 선물, 먹을 것을 사준다	.03	.23	.65	.47
17. 나는 손자녀에게 엄마가 야단칠 때 손자녀 편을 들어준다	.34	-.03	.52	.39
고유값 (Eigen value)	6.94	1.49	1.21	
요인별 설명력 (%)	40.8%	8.8%	7.1%	
총 설명력 (%)		56.7%		

나는 할머니에 대해 좋게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편이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이는 좋은 편이다'의 3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에 이르는 응답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음을 뜻한다. 문항간 내적일치도인 크론바하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모에 대한 모의 지위는 딸 또는 며느리이다.

4. 자료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첫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밖에, 조

모의 역할수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모의 과반수는 66-75세에 속해 있으며, 그밖에 약 3분의 1은 65세 이하이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68.7세이며, 연령 범위는 50-86세로 넓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연령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조모의 약 55%는 배우자가 없으며, 57%는 건강상태가 보통이다. 그러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건강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4명)

변 수	범주	빈도 (%)	변 수	범주	빈도 (%)
연령	65세 이하	89 (32.5)	주 수입원	취업소득	56 (20.4)
	66-75세	145 (52.9)		예금·연금	19 (6.9)
	76세 이상	39 (14.2)		재산소득	30 (10.9)
배우자유무	있음	121 (44.2)		자녀	139 (50.7)
	없음	151 (55.1)		기타	28 (10.2)
건강상태	건강함	27 (9.9)	지난 1년간 조모 손자녀의 대면접촉빈도	1년에 1번 이하	5 (1.8)
	보통	157 (57.3)		1년에 2-3번	31 (11.3)
	건강하지않음	90 (32.9)		1달에 1번	13 (4.7)
생활수준	잘 사는 편	28 (10.2)		1달에 2-3번	19 (6.9)
	보통	205 (74.8)		1주일에 1번	17 (6.2)
	못사는 편	40 (14.6)	1주일에 2-3번	23 (8.4)	
손자녀의 친부모	모두 계심	250 (91.2)	모의 취업	매일	164 (59.9)
	이혼별거사별	18 (6.5)		취업안함	60 (21.9)
	모두 사망	4 (1.5)	취업함	191 (69.7)	
조모 손자녀 동거여부	동거함	154 (56.2)	조모와 모의관계	평균 2.68 ^a (표준편차 .43)	
	동거안함	117 (42.7)			

주) 1. 무응답으로 인하여 각 변수별 빈도 합계는 차이가 있으며, 백분율은 전체 274명에 대한 비율임.

2. a : 조모와 모의 관계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임. 가능한 점수범위는 1-3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음을 뜻함.

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모의 4분의 3은 생활수준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며,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42.7%)보다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56.2%)가 더 많다. 그런데 조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의 56.2%인 154명인 반면, 조모와 손자녀가 매일 대면접촉하는 경우는 전체의 59.9%인 16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모와 손자녀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살면서 서로 매일 대면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모의 직업이 없는 경우(21.9%)보다 있는 경우(69.7%)가 더 많다. 조모의 과반수는 주 수입원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자신의 취업소득을 갖고 있다. 한편, 조모의 약 60%는 지난 1년간 손자녀와 매일 만나고 있으며, 1년에 1번 이하만나는 경우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그밖에, 조모와 모의 관계는 평균 2.68점으로 나타나, 가능한 점수범위인 1-3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좋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IV. 연구 결과

1.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차이: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전체적인 역할수행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이 각각 2.29와 2.23점으로 나타나, 가능한 점수범위인 1-3점을 고려할 때 모두 중간 수준 이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리고 취업모 가족이든 비취업모 가족이든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3개 역할 중에서 훈육자 역할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반면,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3개 역할 중에서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과 훈육자 역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수행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표 3〉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 비교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비취업모 가족		취업모 가족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	2.01	.53	2.03	.56	-.26
2. 훈육자 역할	2.64	.38	2.68	.39	-.69
3.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	2.12	.56	2.28	.49	-2.13*
전체 역할수행	2.23	.42	2.29	.43	-.89

* $p < .05$

다(표 3 참조). 즉, 비취업모 가족보다 취업모 가족인 경우 조모는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 배경 변수와 조모의 역할수행과의 관계 및 조모 역할수행에 대해 배경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먼저 배경변수와 조모의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별로 피어슨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 모두 조모의 건강과 생활수준은 조모의 역할수행과 상관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배경변수들은 취업모 또는 비취업모 가족이냐에 따라 상관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취업모 가족을 살펴보면, 조모의 연령, 건강, 생활수준,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는 조모 역할수행과 상관정도가 매우 낮은 반면, 배우자 유무, 손자녀와 동거여부,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는 조모 역할수행과 어느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와 동거할 때, 그리고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은 높아진다.

비취업모 가족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 조모의 건강, 생활수준, 그리고 손자녀와 동거여부는 조모의 역할수행과 상관정도가 매우 낮은 반면, 조모의

〈표 4〉 변수들간의 피어슨 단순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조모의 연령		-.11	-.05	.10	.21	-.01	.12	-.14	-.30	-.19	-.21
2. 배우자 있음 ^a	-.30		.20	.17	-.14	-.09	-.04	-.11	-.05	.11	-.01
3. 조모의 건강	-.25	.20		.39	-.04	.09	.07	-.08	-.01	-.01	-.04
4. 생활수준	.01	.11	.31		-.08	.14	.04	-.01	.11	.04	.04
5. 손자녀와 동거 ^b	.05	-.18	.05	-.01		.59	.01	.07	.07	-.07	.03
6. 조모와 손자녀의 대면접촉빈도	.01	-.20	-.07	-.09	.67		.24	-.05	.30	.05	.04
7. 조모와 모의 관계	-.04	-.01	.16	.08	-.04	-.00		.24	.47	.39	.38
8.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	.07	-.15	-.14	-.01	.10	.20	.01		.54	.57	.89
9. 훈육자 역할	-.09	-.09	-.03	.01	.08	.17	.03	.66		.60	.78
10.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	-.08	-.23	-.01	-.03	.22	.28	.11	.57	.58		.85
11. 전체 역할수행	-.01	-.19	-.10	-.02	.16	.25	.04	.92	.83	.81	

주 1) 대각선 오른쪽의 상관계수들은 비취업모 가족, 대각선 왼쪽의 상관계수들은 취업모 가족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것임.

2) ^a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3) ^b 손자녀와 동거=1,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음=0

연령,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 조모와 모의 관계는 조모 역할수행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 역할수행은 높아지며,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을수록 특히 조모의 훈육자 역할수행은 높아진다.

이상에서 배경변수와 조모 역할수행과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조모 역할수행에 대한 배경변수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모두 고려할 경우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Enter방식을 사용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으로 나누어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배우자 유무와 손자녀동거 여부는 가변수화하고 나머지 변수는 모두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70이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표 5>에서 취업모 가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모와 손자녀간 대면접촉 빈도

<표 5>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중회귀분석 (취업모 가족)

독립변수	종속변수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		훈육자 역할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		전체 역할수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조모의 연령	.00	.02	-.01	-.14	-.01	-.12	-.01	-.07		
배우자 있음 ^a	-.10	-.09	-.06	-.08	-.19	-.20*	-.11	-.13		
조모의 건강	-.09	-.11	-.03	-.05	.01	.02	-.05	-.08		
생활수준	.08	.08	.04	.05	.02	.02	.05	.07		
손자녀와 동거 ^b	-.05	-.04	-.03	-.05	.05	.05	-.01	-.01		
대면접촉빈도	.06	.21*	.04	.20*	.05	.22*	.05	.24*		
조모와 모의 관계	.03	.02	.03	.04	.13	.12	.05	.06		
상수	1.55*		2.96***		2.25***		2.20***			
R ²	.07		.06		.14***		.10*			

- 주 1) a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 2) b 손자녀와 동거=1,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음=0
- 3)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중회귀분석 (비취업모 가족)

독립변수	종속변수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		훈육자 역할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		전체 역할수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조모의 연령	-.02	-.30*	-.03	-.44**	-.03	-.31*	-.03	-.40**		
배우자 있음 ^a	-.10	-.09	-.07	-.09	.09	.08	-.03	-.04		
조모의 건강	-.04	-.07	-.06	-.14	-.06	-.09	-.04	-.09		
생활수준	.16	.13	.18	.20	.13	.10	.15	.16		
손자녀와 동거 ^b	.39	.36	.06	.08	.12	.10	.22	.27		
대면접촉빈도	-.11	-.36	.03	.13	-.02	-.06	-.04	-.16		
조모와 모의 관계	.60	.34*	.57	.47***	.92	.48**	.69	.50**		
상수	2.22*		2.32**		1.34		2.02*			
R ²	.17		.38**		.26*		.27*			

- 주 1) a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 2) b 손자녀와 동거=1,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음=0
- 3)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개 역할 중에서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과 훈육자 역할 수행의 경우에는 조모와 손자녀간 대면접촉 빈도만 독립적 영향을 미치며,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수행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가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조모의 손자녀지지 역할수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조모의 역할수행 전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0%이며, 3개의 조모역할 수행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7%, 6%, 그리고 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에서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해 조모의 연령,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가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모의 역할수행은 감소하며,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증가한다.

조모 역할수행 전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났으며, 3개의 조모역할 수행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17%, 38%, 그리고 26%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족과 비교할 때 비취업모 가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을 비교해보면,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과 훈육자 역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의 경우에는 비취업모 가족보다 취업모 가족일 때 역할수행이 더 많다. 서동인(1989)의 연구에서도 모가 취업한 경우 조모의 대리모 역할수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가 취

업한 경우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대리모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가족 지킴이(Troll, 1983)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사회의 경우,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질병, 빈곤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는 인적 자원으로서 가족이 기능적이 될 때까지 개입하고 지원한다는 지적(Bumette, 1999; Fuller-Thomson et al., 1997; Pruchno, 1999; Schwartz & Scott, 1997: 390)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취업모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모 자신의 삶과 나아가 취업모 가족의 세대관계에 긍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Pruchno(1999)에 따르면, 조부모는 대리모 역할에 통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한편, 피곤, 고립과 소외, 시간과 사생활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즉, 대리모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부모에게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다(Bumette, 1999; Schwartz & Scott, 1997: 390)는 지적이다. 특히 계획되지 않은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는 역할갈등과 실망감을 겪는다(Thorson, 2000: 86)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모가 특히 대리모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취업모 가족의 경우,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 및 가족세대간 유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모이든 비취업모 가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조모는 3개 역할 중에서 훈육자 역할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반면,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수행한다. 서동인(1991)의 연구에서도 조모는 우애와 예절 등의 교육에 관한 훈계자 역할을 제일 많이 수행하였으며,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은 적게 수행하였다. 학동기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덕판단과 양심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조복희 외, 1999: 238)라는 점에서 조모는 학동기 손자녀에 대해 훈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수행은 조모보다 조부의 참여가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서동

인, 1991) 추후 연구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기영(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의 강 조내용과 훈육방법에 대해 부모와 조부모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손자녀 훈육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훈육자 역할수행이 중간세대인 성인자녀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배경변수와 조모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보면, 조모의 건강과 생활수준 요인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 모두에서 조모의 역할수행과 낮은 상관을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모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모의 건강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상자 모두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조모들이라는 점에서 이들간에는 건강 수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생활수준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4분의 3이 보통 수준에 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다양한 생활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배경변수들과 조모 역할수행과의 관계는 취업모 혹은 비취업모 가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취업모 가족의 경우 조모의 연령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는 조모의 역할수행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 모가 취업한 경우에는 손자녀에 대해 조모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조모의 연령 혹은 조모와 모의 관계 여하에 따라 조모의 역할수행이 달라질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 비취업모 가족에서는 이들 변수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손자녀에 대해 조모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조모일수록,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는 보다 자발적으로 손자녀에 대해 조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세대는 조부모와 손자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서동인, 1991; Brubaker, 1990; Roberto, 1990;

Whitbeck et al., 1993)은 본 연구에서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이로써 조모와 모의 관계는 취업모 가족보다는 특히 비취업모 가족의 조모 역할수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젊은 조모일수록 취업 등 가족 밖의 일로 바빠기 때문에 손자녀에 대해 역할수행이 적다는 선행연구들(Robertson, 1977; Roberto, 1990: 102-110)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경우, 중·노년층 여성의 취업 또는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참여가 서구사회보다는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연령층이 낮은 조모라도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조모의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와 동거할 때, 그리고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취업모 가족에서 조모의 역할수행은 높아지므로 향후 이들 변수와 관련지어 취업모 가족에서의 조모 역할수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비취업모 가족의 경우에는 조모의 배우자 유무 그리고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조모 역할수행과 상관이 낮다. 또한, 취업모 가족과 달리 비취업모 가족에서는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다고 해서 손자녀에 대한 대리모 역할 수행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훈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높아지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동기 아동의 발달과업과 관련한 조모의 역할수행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조모 역할수행에 대해 배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 가족에서는 조모와 손자녀간 대면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배우자 유무는 특히 손자녀 지지 및 대리모 역할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핵가족화 시대에 취업모 가족에 대한 지원전략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가 반드시 필요한 대안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취업모 가족의 조모 역할수행에는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보다는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학동기 손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손자녀가 학령전기 아동이거나 유아기인 경우에는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해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비취업모 가족에서는 조모의 연령 그리고 조모와 모의 관계가 조모 역할수행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 변수가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수행에 대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비취업모 가족보다 특히 취업모 가족일 때 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는 인구학적 변수 이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 자신이 손자녀 시절에 조부모와 긍정적 경험이 있으며 좋아했던 조부모가 있었는가 여부(Kivnick, 1982), 또는 조부모 자신이 손자녀 시절이었을 때의 경험(Roberto, 1990) 등이 나중에 조부모의 긍정적 역할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자녀에 따라서도 조부모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친밀하고 동료적 역할을 하는 손자녀 혹은 원거리 관계를 유지하려는 손자녀도 있으므로(Schwartz & Scott, 1997: 389), 조부모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손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은 오랜 기간의 부모자녀관계에 기초하므로, 조부모와 중년자녀 세대간의 과거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Brubaker, 1985: 78-79)는 점에서 세대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족내력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이를 극복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조모와 친조모를 구분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친손 내지 외손에 따라 조모의 역할수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박화윤·이영숙, 1999; 서동인, 1989), 일부 연구(서동인, 1991)에서는 친조모보다 외조모의 역할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구사회의 경우 부모세대의 영향에 따라 외손 또는 친손과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Fischer(1983)는 친손보다는 외손이 조부모와 더 밀

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와 모계 부모와의 관계는 외조부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부와 부계 부모와의 관계는 친조부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Chan & Elder, Jr., 2000). 앞으로는 부모세대의 영향과 관련지어 외손과 친손을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사회의 경우 자녀세대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의붓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수행은 모호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친손 자녀와의 접촉이 제한된 조부모는 조부모연합단체를 통하여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양육권을 요구한다(Jerome, 1993: 236-237)고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 역시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유형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Szinovacz(1998)의 지적대로 친손·외손자녀 뿐만 아니라 의붓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을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부 또한 손자녀에 대한 대리모 역할을 맡고 있으며(Fuller-Thomson et al, 1997), 과거에 비해 오늘날 점점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차 남성들도 조부모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Thomas(1986)에 따르면, 심리적 발달특성 상 중·노년 남성들은 양육, 표현성, 친밀감의 성향이 증가하며 이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부의 역할수행을 포함시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연장과 더불어 취업모 가족의 증가를 고려할 때 Brubaker(1990)와 Roberto(1990)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조부/조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에 대한 증조부모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부는 일반 모집단의 특성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 취업 비율이 70%에 가깝고, 조모와 손자녀 동거 비율이 56.2%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 모집단의 특성을 갖춘 대상자와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활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

의 역할수행 및 관련변수의 영향이 취업모 가족 또는 비취업모 가족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취업모 가족 또는 비취업모 가족 여부에 따라 노년기 삶과 가족세대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각각 구체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현(1999). 노년학. 교문사.

동아일보 1996. 11. 29.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199611290097>

동아일보 2001. 5. 2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210442>

동아일보 2001. 12. 20.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12200239>

동아일보 2002. 1. 3.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201030294>

동아일보 2002. 1. 22.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201220356>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부산시 중·고등학교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박화윤, 이영숙(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1954-1999.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동인(1996). 10대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 역할과 손자녀역할: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유안진(198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이경숙, 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이 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아동학회지, 16(1), 3-18.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희경,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9).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교문사.

최기영(1991). 조부모와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와 세대간 인식 일치정도가 유아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1, 159-183.

한경희(1988).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할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ams, B.N. (1986).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4th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Barranti, C.C.R. (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Barrow, G.M. (1986).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3rd ed.)*. West Publishing Company.

Brubaker, T.H. (1985). *Later life families*. Sage Publications.

Brubaker, T.H. (1990). Families in Later Life: A Burgeoning Research A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9-981.

Burnette, D. (1999). Social relationships of Latino grandparent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9(1), 49-58.

Chan, C.G. & Elder, Jr. G.H. (2000). Matrilineal advantage in grandchild-grandparent relations. *The Gerontologist*, 40(2), 179-190.

Fischer, L.R. (1983). Transition to grandmother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1), 67-78.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 Jerome, D. (1993). Intimate relationships. in Bond, J. Coleman, P. & Peace, S. (eds.). *Ageing in society: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2nd ed.)*, Sage Publications.
- Kivnick, H.Q. (1982). Grandparenthood: An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The Gerontologist*, 22(1), 59-66.
- Neugarten, B.L. & Weinstein, K.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2), 199-204.
- OECD (2001).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정경제부 역, 재정경제부.
- Pruchno, R. (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s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2), 209-221.
- Roberto, K.A. (1990). Grandparent and grandchild relationships. In T.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2nd ed.)*. Sage Publications.
- Robertson, J.F. (1975). Interaction in three generation families, parents as mediators: toward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2), 103-110.
- Robertson, J.F. (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1), 165-174.
- Schwartz, M.A. & Scott, B.M. (1997). *Marriages & families: diversity and change (2nd ed.)*. Prentice-Hall, Inc.
- Stevens-Long, J. (1988). *Adult life (3rd ed.)*.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Szinovacz, M.E. (1998). Grandparents today: a demographic profile. *The Gerontologist*, 38(1), 37-52.
- Thomas, J. L. (1986). Gender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grandparenting. *Psychology and Aging*, 1(3), 215-219.
- Thorson, J.A. (2000). *Aging in a changing society (2nd ed.)*. BRUNNER/MAZEL.
- Troll, L.E. (1983). Grandparents: The family watchdogs. In T.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Sage Publications, Inc.
- Whitbeck. L.B., Hoyt, D.R., & Huck, S.M.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1025-1035.

(2003년 9월 30일 접수, 2004년 2월 12일 채택)